

경제적 자신감과 서양의 쇠락현상이 몰고온 '이상열풍'

동양철학 돌풍,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상파괴 쇼만 벌어지는 척박한 현실 직시해야

홍원식 | 계명대 철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동양철학 붐이 예사롭지 않다. 유교와 그 교주인 공자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힘'이 됐다. 서세동점의 시대 초라했던 동양철학의 자화상을 떠올리면 반가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 붐을 일으킨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서구철학의 자기반성을 마치 서구의 쇠락이라 착각하고, 공력만 닦고 문자해석만 야단인 황당한 고풍이 대중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왜 동양철학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그냥 한 차례 바람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김경일 교수의 공자 몰아내기 고풍도, 김용옥 교수의 노자 불러들이기 고풍도 그저 한편의 굿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지난 해 가을 김용옥 교수가 KBS 1TV에서 장장 100회에 걸친 100시간의 《논어》 강의를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서 이젠 정말이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가 이전에도 여러 일간지에 얼굴을 내비칠 때면 전면을, 그것도 광고마저 허용치 않은 전면을 요구한 것을 기억하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아니다.

동양의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의 제1공영 TV방송에서, 그것도 《논어》라는 한 권의 책을 한 사람이 1년에 걸쳐 강의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떠나 그 결정 자체가 너무나 파격적이었다. 사실 그 결정은 지금까지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같은 동양철학 연구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기쁨과 자부의 마음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 한편으로 그래도 이젠 아닌데 하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는다.

이건 분명 엄청난 '사건'이며 중대한 '현상'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건'과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동양철학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높은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여기에서 이런 '사건'과 '현상'의 배경을 한번 차분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 서서 살펴보기로 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세기 동양철학의 초라했던 자화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서세동점의 역사적 상황 아래 동양의 지체에 대한 모든 죄과는 동양의 정치·경제제도와 문화를 지나 결국 철학이 뒤집어쓰게 됨으로써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동양인들은 자신의 마지막 유산마저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국면을 맞게 된다. 물론 안쓰러운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양에도 서양의 '필로소피'를 닮은 '철학' 비슷한 게 있기는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어렵사리 '동양철학'이란 것을 얼기설기 엮어 '필로소피' 앞에 내밀라치면 항상 열등한 것이거나 아니면 진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받기 일쑤였다. 그런데 지금, 이 어찌된 일인가?

동양철학이 그래도 조금 목소리를 내고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그것도 일본

을 필두로 '4소룡(小龍)'이라고 일컫는 동아시아의 몇몇 나라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성취를 이루면서부터다. 자신의 경제적 성취에 내심 놀라워하면서 자부심과 더불어 자기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양의 문화와 철학을 재인식하고 재평가하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유교와 그 교주인 공자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힘'으로 인식된다.

서양의 쇠락에 대한 주관적 착각

20세기 말로 오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이자 동양문화의 중주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자 '아시아적 가치'라든가 '유교자본주의론' 등과 같은 이른바 '동아시아 담론'이 한층 힘을 받게 된다. 동아시아 담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동양 문화와 철학에 대한 긍정 일변도의 검토란 점이다. 대부분의 세계인이 새로운 밀레니엄을 불확실과 불안으로 맞고 있을 때 동아시아는 그렇지 않았다. 이른바 IMF 사태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희망으로 21세기를 맞고 있었다. 그들은 21세기에 동양의 문화와 철학이 동양의 답을 넘어 세계 속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확신하게 된다. 동양인들의 이런 생각은 반드시 객관적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그들은 지금 상당히 흥분돼 있다.

한편, 동양의 이런 자신감은 많은 부분 '서양의 쇠락'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객관적 상황 인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20세기 들어 서양은 파국적인 역사 상황을 여러 차례 맞는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절망적인 것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극도의 야만적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아연실색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하게 된다. 곧 그들은 자신이 걸어온 근대의 길, 그리고 그 근대를 만들고 지탱시켜 준 이성, 마치 신적 존재인 양 떠받들던 이성의 권능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세기말로 오면서 반이성주의의 포스트모더니즘이 한때를 풍미하게 된다.

이렇게 쇠락해가는 서양을 목도하고 있던 동양인들은 가뜰이나 자신감이 차 오르던 터라 그들의 실패는 곧 자기의 성공으로, 그들의 오류는 곧 자기의 진리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읽어버린다. 하지만 타인의 불행이 어찌 바로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물며 '서양의 쇠락'이 반드시 객관적 상황인 것도 아닌 바에 있어서라! 동양인들의 이런 착각 어린 생각에 기쁨을 부여준 이는 자신의 문화와 철학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회의하면서 동양으로 눈을 돌린 서양 학자들이다.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부드러웠고 긍정적이었다. 이것을 본 단순하고도 성급하기 짝이 없는 동양인들은 마치 서양이 이제 동양에 '투항'하거나 '한 수 배우리' 온 것처럼 생각한다. 의도적 착각이 아니면 그 동안 짓눌렸던 데 대한 한풀이나 열등감의 표현과 같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급속한 산업화·정보화 과정에서 파생된 서양의 부산물들, 가령 자기상실과 인간소외, 계층과 계급 및 성적 불평등, 도덕과 가정의 붕괴, 각종 범죄, 환경 파괴 등의 문제에 대해 동양철학은 마치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는 양 모두 답하려 든다. 이 과정에서 동양철학의 주관과 객관, 인간과 자연간의 일원적·조화적 세계관이 만병통치의 처방전으로 제시되고,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유희도 37의 철학이 적절히 해석되고 포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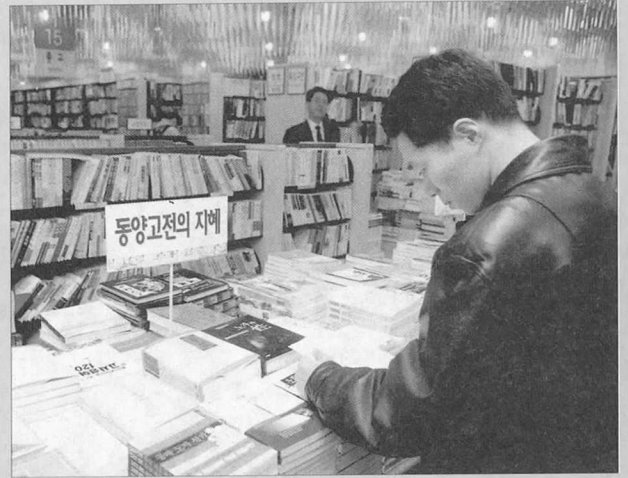
하지만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비록 동양의 문화와 철학에 대해 이해와 우호의 눈빛을 보냈지만, 문제의 출발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현실이며 어떤 경우에도 동양은 하나의 참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문화와 철학의 뿌리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

이 그나마 동양에 관심을 두는 이들은 그들 가운데 극히 일부며, 그 흐름은 결코 주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양철학의 '활극' 즐기는 대중들

이제까지의 거시적 논의로는 아무래도 오늘날 한국 땅에서 불고 있는 동양철학의 '돌풍'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듯하다. 이런 돌풍현상은 비슷한 철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분명히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다.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동양철학 돌풍현상은 아무래도 흥행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선과 악, 생과 사가 드라마틱하고 다이내믹하게 펼쳐지는 동양철학 활극을 우리 '국민'들은 깊이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그 속에는 동양철학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없다. 분석은 없고 결론만 있으며, 토론은 없고 주장만 난무한다. 내용은 문제되지 않고 외양만 문제삼으며, 실력은 다루지 않고 공력만 다루며, 철학 내용은 뒷전이고 문자 해석만 야단이다. 활극의 흥행 여부는 간단명료함에 달려 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길은 두 갈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비전공자가 뛰어들고 아마추어가 판을 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슬픈 쇼와 엉뚱한 굿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도 그렇지 정말 이견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의 동양철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요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척박하고도 황폐한 현실을 본다.



이 땅에 불고 있는 동양철학의 돌풍현상에는 주장과 문자해석이 난무하는 쇼와 굿판을 즐기는 국민들의 지적 허영심이 잠복해 있다. 하지만 이곳에 동양철학은 사라지고 없다. 다만 활극만이 살아 있을 뿐이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동양철학서 코너.

이렇듯 활극의 또 하나의 성공 요인으로, TV 《논어》 강의의 경우 시청자들의 '지적 허영심'을 적절하고도 교묘하게 충동질하고 채워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래도 나는 다르다는 일종의 허영심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는 그렁고 그런 애정놀이나 벌이는 드라마나 어디 뒷골목 양아치 같은 애들이 떼지어 나와 시간죽이기 '이빨 따먹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다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은 알 듯 모를 듯한 고급 강연을 듣고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무척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으리라. 사실 이것은 무척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파괴본능을 맘껏 자극해준다는 점도 흥행 성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김경일 교수는 아예 드러내놓고 감각적 언어로 공자를 '까고' 있고, 김용욱 교수는 공자와 노자를 떠받들면서 서양이라는 우상을 여지없이 짓밟고 있으며, 또한 상아탑의 무능함을 조롱하고 있다. 다시 김용욱 교수는 '평범한' 아줌마와 '문외한' 여성 영문학자에게 터지고, 다시 그는 그들을 공력으로 내리누르는 희극을 연출한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데서 관중들은 짜릿한 자극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모두는 동양철학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동양철학으로 쇼를 하고 굿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 그 속에 동양철학은 없다. 정말 이견 아닌데, 정말 이래서는 안되는데 말이다. ●